

신안 천사대교 임시개통 현장 방문

김영록 지사 · 서삼석 국회의원 · 박우량 군수 참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개통(1~7일)까지의 천사대교 현장을 박우량 신안군수, 정광호 도의원, 이상주 김혁성 군의원 등과 함께 방문, 익산정도명성 계장으로부터 임시개통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답소를 나누었다.



천사대교는 신안 압해읍 송공리에서 압태면 신석리를 연결하는 총길이 7.22 km, 왕복 2차로로 사장교와 현수교 형식

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교량으로 우리나라 4번째 규모의 장대교량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이개호 장관, 전국 우제류 도축장 소독 등 총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2월 7일 구제역 방역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

를 주재 후, 충북 음성군의 농협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대

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1월 28일 경기 안성에서 시작한 구제역은 앞으로 일주일 만에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2월 3일 완료하였고, 긴 명절 연휴기간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설 명절연휴 전에 전국 모든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이개호 장관은 "아직까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 안전 외국인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경우에 일정기간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철저한 소독 후에 정상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재삼 대표기자

전라남도-인도, 1천만불 수출입협약 체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신남방지역과 교류확대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지난 7일 인도를 방문, 비스와방글라컨벤션센터에서 제이피 췌더리(Jagdish Prasad Chowdhary) 티타거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 오병래 현대엔테크 대표(왼쪽 두 번째)와 1천만불 수출입협약을 체결했다.

선박용 엔진과 해상용 발전기 등을 수출·입하는 내용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전경선 도의원,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지역경제 · 사회적약자 정책 높은 평가...의정역량 대외적 입증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민주당/목포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8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원 824명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응모자 중 2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경선 의원은 "더불어 사는 세상, 사

람이 먼저인 세상'을 의정 활동 철학으로 목포시 지역 전문가로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거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삼향전 정비를 통한 친환경 신도시 조성, 먼지 없는 교실, 직업 상담센터 설립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인 구유임을 위한 도시개발 장기 플랜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거공약을 제시했고 서민과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경선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선거 때 주민들과 함께한 약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진행된다. /이민행 대표기자

나광국 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지역민이 먹고 사는 근본적 문제해결 높은 평가

전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민주당/무안2)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광역시·도의원 824명을 대상으로 2018 지방선거 선거공보(공약)를 심사하여 우수

의원 25명을 선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지역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정책, 신 중년 인생이모작 사업과 농민수당 도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 등 지역민들이 먹고 사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안=류춘범 기자



한편, '201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다.

盧嶺 敲



이민행 CEO 편집인

務貪則憂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뒤따른다 웬만하면 나를 부르지 마라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세상은 탐욕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본다.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다. 임자자들의 이름이 각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마다 많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도 탐욕 때문에 명예와 돈을 잃고 건강까지 잃는 자들을 볼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사회악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선거법 위반으로 법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인지, 특히 뇌물 관련한 범법행위 전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인근 함평군에서는 농협과 축협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함평농협은 농협 토지 매각 대금으로 성과금 잔치 벌었다고 문제를 삼은 박00 김사가 해임되고, 박00김사는 검찰 목표지칭에 고소한 상태이다. 또 2017년 베트남인가로 조합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이 섹스여행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성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측은 '아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함평축협도 사료공장의 사료 판매과정에서 현직 이사가 구입전표보다 더 많은 양의 사료를 가져가며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시끄럽다.

무안군도 일로농협에서 냉동기사 없는 저온저장고 관리로 양파 1만8천명이 얼어버린 일이 벌어졌다. 더욱 기막힌 것은 손실을 막아보겠다고 냉해 입은 양파로 '양파즙'을 가공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 보건소에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 손실만 키워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향농협은 조합장이 심향농협 북부지점 지점장을 훔기로 위협하는 소동을 벌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조합장과 지점장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도한바 있다.

중용에 "小人行險以微幸(소인행험이요행), 소인배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까지 요행을 바란다"고 했다. 微幸(요행)이라며 살지 말라. 잘못하면 變行(요행), 즉 쓸쓸한 인생 된다.

◆기해년,正義가 邪惡한 자에 '외침'

웬만하면 나를 부르지 마라. 듣기 싫다. 내가 요즈음 풀이 좀 죽고 가슴 속이 약간 쓸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아주 산승장 다 된 건 아니다.

망연히 슬픔에 몸을 싣고 대양을 떠다니는 一葉片舟(일엽편주)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나 결코 슬픔이나 외로움 따위로 무너질 만큼 어슬픈 사내 아니다.

입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만 '더 많은 음성'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더 선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지난 내 삶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이다.

그러나 아찔은 그게 잘 안 된다. 근래 마음에 입은 상처가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언젠가는 아물겠지.

나를 아는 체 하려거든, 나를 부르려거든, 내 가슴 속의 슬픔까지도 알고 나서 불러 주라. 난 결코 겉보내 흡수룩하니 놓아가는 그렇고 그런 물건은 아니다.

내 가슴 속엔 아직 다 타오르지 못한 불기둥 하나 남아 있다. 굳이 겉보내를 연관 지어 서나를 아는 체 좀 하지 말라. 사람을 생물학적 차원으로 끌어내려 평가하는 건 모욕이다. 삶의 지향성을 잃어버렸다. 지금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예리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아직은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이상 닳아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어떤 경우에도 虛名(허명)은 싫다. '텃 빈 목소리'로 습관처럼 나를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한낱 농투성이에 지치고 고단한 몸골로 겉보기 아주 남루하지만 육신이 사위어 가는 세월만큼 내 영혼은 오히려 더 맑다.

그러나 웬만하면 나를 좀 부르지 마라.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마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부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말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사람을 부르려면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다. 내용 없는 공치사처럼 '텃 빈 목소리'로 부르지 마라.

나는 평소 '습관의 노예' 들을 가장 경멸하며 살아왔다. 더러운 습관에 찌든 손을 덥석 움켜쥐진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구축된다. 그러니 새삼 함부로 나를 길들이고 다루려 들지 마라. 뒷집 강아지 이름 지어 길들이듯 나를 그렇게 이름 지어 길들이려 들지 마라.

가장 '차이온 눈빛'으로 스스로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다.

얼핏 농투성이 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난 평생을 통해 內觀(내관)의 눈을 연단시켜 온 사람이다. 하찮은 인생에 목매달고 허우적거리기 이유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웬만하면 허튼 수작으로 나를 부르지 마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움이 보이듯이 나를 부르려거든 진정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나를 부라. 탐욕을 속에 품고 부르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살'에 내태주 시인의 '꽃'을 울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아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되고 남치니까.)

그렇다. 하여 景行錄(경행록)에 "知足可樂(지족가락) 務貪則憂(무탐즉우), 즉함을 알면 즐거운 것이요,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하게 된다."고 했는지 모른다.

주간 盧嶺新聞 www.rorynews.kr

E-mail: rory8933@hanmail.net / hpcj3355@naver.com

신문윤리강령
주간 노령 盧嶺은 신문윤리 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대변할 것입니다.

•등록번호: 전남 다 0031 •발행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명성2길 15
•인쇄소: 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인길93-10)

구독료: 월 5,000원 _납부계좌: 농협 351-0934-9171-73 (예금주 주간노령)